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6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WWW.CENTERFORBAM.COM](http://WWW.CENTERFORB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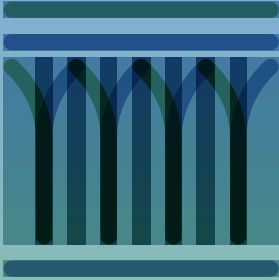
#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6

## TABLE OF CONTENTS

- i. 공동대표 인사
- ii. 2016 년 CBAM 사역 정리
- iii. 2017년 사역 우선순위
- iv. 재정 정보
  - 2016년 정산
  - 2017년 예산

Center for BAM Management Team작성  
작성일자: 2016년 12월 20일  
TCFbam@gmail.com

# WHO WE ARE AND WHAT WE DO



## JBS

JOSHUA  
BUSINESS  
SCHOOL

JBS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배우는 12주간의 온라인 학교입니다.



## C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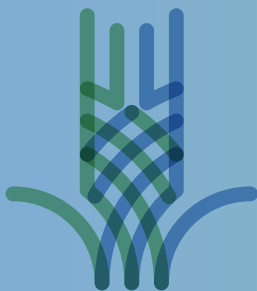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자원을 복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지역의 BAM 회사들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 JE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 는 BAM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동역하는 BAMer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복음의 영향력이 필요한 문화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CBAM 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풍성함을 발견한 사람들  
비즈니스를 통해 맺어진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받은 은사를 열방을 섬기기 위해 함께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는 사람들



## I. CBAM 공동대표 인사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 극심했던 정치적인 혼란과 변화,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서 2016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는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고,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저희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CBAM)과 저희들의 동역 가운데 함께 해주셨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CBAM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스포라 선교공동체이며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선교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CBAM의 핵심멤버들이 BAM(Business as Mission)의 비전을 처음 나누고 모임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일 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BAM 운동을 이끌고 있는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의 모체가 되는 상하이 한인 비즈니스 포럼이 시작된 지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BAM운동은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 “전체 교회가 총체적 복음을 전 세계에”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전하기 위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대안과 틀 (framework)을 제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CBAM이 걸어온 길도 본질적으로 이 총체적 선교를 함께 지향 할 뿐 아니라, BAM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고,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비즈니스를 통한 총체적 선교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돕는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전체 BAM 운동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히 BAM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우리의 도시나 선교지에서 실제로 BAM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선교적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강력한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 61:3



올해 8월에 있었던 CBAM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스포라 선교공동체이며 우리의 사역이 이러한 선교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속주의의 영향력과 여전히 종교 중심적, 지역교회 중심적인 견고한 신앙의 틀과 생활양식이 존재하는 가운데 통합적인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이 커다란 어려움과 도전임을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며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CBAM의 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해마다 깨닫는 것은 사역의 초점은 다르지만 그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 2월에 시카고 휘튼 대학에 있었던 CBAM 스태프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교회를 돕는 선교적 교회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BAmE 수양회에서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스포라 선교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저희가 CBAM에서 하는 사역들이 바로 이러한 선교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비전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Raising a new generation in business world!” 비즈니스의 제국 가운데 황무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하고 새롭게 세우는 선교적 크리스찬들, 선교적 교회공동체들을 세우고 돕는 저희들의 사역은 2017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또 이루어가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찬만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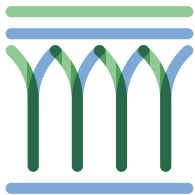
2016년 12월 10일 서명구, 조샘 드림



## II. 2016년 CBAM 사역정리

CBAM의 사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현대의 도시,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는 복음이 필요한 문화권에서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주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창업학교입니다.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타문화권에서 운영하는 BAM 기업을 재능과 자원을 가진 분들과 연결하여 협력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사역입니다.

2016년은 CBAM 전체의 정체성이 자리잡고 공동체성이 자라감과 동시에, 각 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팀웍을 다지며 사역을 더욱 깊이 확장하고 뿌리내려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의 선교적 삶을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JBS 는, 2015년 연말부터 진행된 JBS 3.0 개발을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새 프로그램의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온라인 JBS 는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의 불확실성과 몇달에 걸친 긴 모임 시간으로 인해 과정을 끝까지 수료하는 사람들은 30%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부터 새로 개편된 JBS 는,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과정에 대해 이전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몇달간의 헌신된 참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개편 이후 12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시작한 17개의 스쿼드중 10개의 스쿼드가 이미 과정을 모두 수료했습니다.

또한 2016년 올 한해 JBS 에는 교회 차원에서 목회자 또는 직분자 분들의 참여하에 JBS 를 진행하는 스쿼드가 여럿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캘리포니아 주님의 빛 교회, 인랜드교회, 상하이 연합교회, 버지니아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캘거리 한우리교회, 미시사가 서부장로 교회 등에서 JBS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삶의 변화에 대한 풍성한 간증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회에서 수강을 마친 졸업생들이 또 다른 스쿼드를 만들어 JBS 모임을 계속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던 '교회 밖' 모임이 아닌 '교회 내' JBS 모임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기도를 어느새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지역교회와 여러 BAM관련 컨퍼런스, 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지역교회들과의 협력이 내년에는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BAM 운동의 중심인 IBA 와 나우미션과의 동역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 제자로'라는 표어와 '세상속 제자도' 라는 부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게 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JBS의 적극적인 홍보, 지속적인 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 멤버들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뉴저지 Rutgers 대학의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심한보, 조아람 부부가 9월에 합류하여 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 JBS

JOSHUA BUSINESS SCHOOL



MORE THAN  
**16 COUNTRIES**



SCREENED  
MORE THAN  
**23,000 TIMES**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을  
을 얻게 하려 하시  
이나라  
이사야61:3



JBS 팀 온라인 회의 모습. 뉴저지에 있는 심한보, 조아람 부부가 9월에 합류하여 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IN 4 COUNTRIES  
FOR THE 5TH TIME**

JES는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1주일간의 BAM 창업 학교입니다. 2015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휘튼대학의 이민동교수님, 유현석 형제와 장영희 자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김진수 선교사님이 리더십을 구성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JES를 더욱 견고하게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진행된 제 4회 JES에 이어서 올해는 6월 27일 부터 7월 2일 까지 같은 아시아 지역인 중국 상하이에서 제5회 JES를 28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JES에서는 커리큘럼을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한 창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습과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강조해 학생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직접 시장조사도 실시하고 함께 기업 방문도 하는 등 실천을 목표로한 교육으로 개편하여 진행하여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번에 걸친 BAM 기업 창업 훈련을 경험해 가면서, (1) BAM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고, (2) 함께 동역할 BAMer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3) 복음의 영향력이 필요한 문화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JES의 세가지 교육 목적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이루갈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립해 갈 수 있었습니다.

JES의 참가자들 중에 선교사와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 보다는 청년과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강화된다고하는 지난 4년간의 흐름은 올해 제 5회 JES에서도 계속 되었으며, 내년 6월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열릴 예정인 제 6회 JES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다른 형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경우, 그동안의 JES의 경험을 통해서 선교학과 신학에서의 보강이 필요하고 후방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좀 더 장기적인 학교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초부터 CBAM 차원에서 IBA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물로 국내에 있는 다양한 해외선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오모라비안 하우스 Neo Moravian House (네모하우스) 를 올해 2016년 7월과 8월 4주간 서울에서 발족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업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은 지난 수년 동안 진행했던 JES 를 통해서 얻어진 교육경험과 인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모하우스의 발족과 함께, 2012년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처음 발족되었던 JES 는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는 평신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현재 CBAM 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미래의 선교는 더이상 선교사와 비선교사,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지 않는 익명의 선교사 anonymous missionaries 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요청됩니다.

다만,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JES 의 현재 멤버들이 좀더 보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기존에 있는 BAM기업에서 훈련받거나 일하도록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작업이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라비안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다!”

라는 모토로 2016년 7월과 8월 기간 동안 서울 송실대학교에서 진행될 이 학교는, 한국 BAM 운동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선교단체 연합사역입니다. 그동안의 JES 의 경험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낼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사야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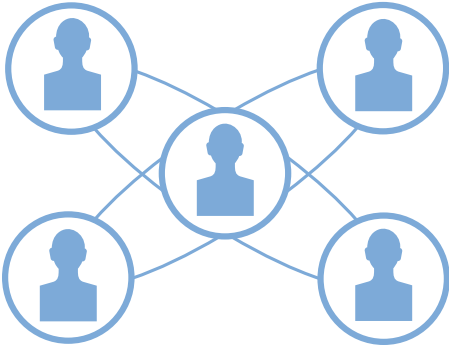
이번 해 6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5회 JES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한 창업에 집중하고 실습과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 더 실천을 목표로한 교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여 BAM 기업들을 돕는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지난 2015년 Center for BAM의 동역에서 가장 빛나고 약진이 두드러졌던 그룹은 CRN 팀입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실험적으로 프로젝트 팀이 형성되었던 이 그룹은 이제 하나의 상시 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에서 일하는 강성범 박사, 인도 방갈로어의 최영준 선교사 (현재는 한국에서 사역 중),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민정원 자매, 뉴욕과 토론토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송재희 자매와 백미정 자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부중인 김찬양 자매로 구성된 CRN 팀은 그야말로 다국적 팀입니다. 예년에 비해 보강된 팀은 현재 한달에 한두번씩 인터넷을 회의를 하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CRN 프로젝트는 지난해에도 미국, 베트남, 한국에서 진행되었지만, 지난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웹진의 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의 BAM 기업을 소개하고 그와 함께 후방에서 자기직업과 은사를 개발하고 있는 BAMer 들을 함께 소개하는 컨셉트로 운영되는 이 웹진은 저희들 CBAM 전체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5회를 발간한 웹진을 다음의 링크와 연결하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enterforbam.com/news/>

앞으로 CRN 팀은 JBS와 JES의 졸업생 및 강사 네트워크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CRN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랜 비즈니스 경험을 한 사업가들이 신생 BAM 기업들을 코칭해주는 멘토링 서비스를 추가하고, 동시에 소셜 펀딩 기관인 The Bridge와의 연계를 통해 복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지역의 청년들이 BAM 회사를 창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http://www.centerforbam.com/news/>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  
신 그 영광을 나  
타발 자라 일컬음  
을 얻게 하려 하심  
이나라  
이사야 61:3



CRN 팀의 애교발사! 가장 뒤늦게 형성되었지만, 가장 재미있고 활기찬 CRN 팀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 III. 2017년 사역 우선 순위

저희가 올해 발간했던 2015 Annual Report 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비전과 정체성 확인 - 비즈니스 세계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운다
- 미션얼 라이프의 유통! Content distributor로서의 자리매김
- 내부 역량 강화

이 세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첫번째 우선순위는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CBAM 멤버들의 공동체적 확인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두번째로 모였던 스텝 모임, 그리고 올해 8월 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BAMer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교회를 돕는 선교적 교회공동체”임과 CBAM에서 함께 하는 우리의 사역들이 바로 이러한 선교공동체를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비전과 목적을 확인하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들 가운데 진행되는 유사한 컨퍼런스를 지지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함께 협력했던 IBA 와의 협력도 계속되었고, 호주 시드니에 올해 10월에 있었던 BAM conference와도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우선 순위도 2016년 한해 동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BA와 상호 자료를 공유하고 BAM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JES의 지시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는 BAM 스쿨의 창립과 운영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CRN을 통한 웹진의 발간과 유통은 BAM의 메시지, BAM기업들과 BAMer들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 유통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우선 순위는 각 팀의 인력이 확보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지만 다른 측면, 특별히 재정자원의 안정적 지원과 보고체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진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가지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여 다음의 세가지 우선순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 1. BAM을 배우고 실천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지원한다

BAM 운동을 함께 해 온 지난 10년 동안 점차로 선명해지는 BAM의 본질은 그 곳이 선교지가 되었던 후방의 도시가 되었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BAM운동 중에 가장 필요하며 공통의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도 이러한 선교적 그리스도인들, 선교적 교회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기위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들을 세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저희 CBAM의 각 프로그램에서 이미 경험하고 추구해온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2017년 에는 CBAM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 목적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들을 생각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의 선교적인 삶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데서 시작해서, BAM의 비전을 알리고, 실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선교적 공동체와 연결되어 BAM의 사역에 참여하는데 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되고 일관된 과정을 정립하고 홍보하며 CBAM의 각 프로그램이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참여합니다.
- 주요 도시에 BAMer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양의 Washington DC에서 주로 진행되었던 CBAM 여름 수양회를 작은 컨퍼런스 형태로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여 내부적인 결속 뿐 아니라 도시 마다 관심자들이나 교회들에게 BAM의 비전을 나누고 BAMer들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또한 CBAM의 각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고 연결된 개인, 그룹, 단체들이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돌보고 연결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비전과 뜻을 공유하는 다른 단체들, 예를 들면 IBA, 인터서브, 미션퍼스펙티브, 카이로스 등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낍니다.
- 이를 위하여 CBAM내에 별도의 담당자를 두거나 혹은 팀을 구성하고 (커뮤니티 개발 팀) CBAM 전체 차원에서 이 일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 2. 미션얼 라이프를 돕는 BAM Content 개발과 유통 강화

저희 CBAM 뿐 아니라 IBA와 로잔의 Thank Tank와 같은 협력단체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BAM과 선교적인 삶에 대한 영상 및 출판 자료들을 모으고 비즈니스 세계의 도시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사는 개인과 단체의 필요에 맞게 편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작년에 이어서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들을 생각합니다.

- IBA와의 협력으로 기존의 양 기관에서 모인 자료들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편집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동영상 자료실 개발을 작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 자료실에 모인 자료들을 기초로 누구에게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추가 편집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자료실, 웹진, SN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CBAM 혹은 각 프로그램 내에 별도의 담당자를 두거나 혹은 전담 팀을 구성하여 이 일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 3. 내부 역량 강화

지금까지는 CBAM의 각 프로그램들이 다소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올해 부터는BAM 전체의 생태계 속에 다양한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연결시키는 목적을 위하여CBAM이라는 전체 구조 속에서 각 프로그램들이 보다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지원 해야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교류를 격려하고 각 프로그램 대표들로 구성된 CBAM 전체 실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을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2016년의 총 수입과 지출은 각각 \$55,241.32 과 \$38,573.39 으로 작년도에 계획했던 예산규모였던 \$ 62,250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보고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필요한 재정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으며, 그동안 재정후원을 하셨던 분들과 교회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꾸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역이 계속 확장해나감에 따라 후원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산 계획과 집행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강이 내년 한 해 동안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작음에는 상당수의 경비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CBAM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주의는 계속 유지해야하지만, 동시에 후원자를 늘림으로 현재 스태프들의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이사들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이사들과의 동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력도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연결되었고 각 팀에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동안의 사역확장과 내년에 이루어갈 새로운 사역을 생각할 때, 구조적 조정과 팀별 인력 보강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2007년 여름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 10년을 맞아가며 규모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이 일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프로그램간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 이사진들과의 협력 가운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킨다.
- 각 팀의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과의 동역이 있었기에 이상의 사역들이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동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1:6).



## IV. 재정보고

### 1. 2016년 재정보고 (2016.1.1 - 2016.12.31)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D)	합
수입	CBAM	여름수련회	\$3,340.00	\$34,870.88
		정기후원	\$17,200.00	
		IBA BAM School 후원	\$14,330.88	
	JBS	등록비	\$3,500.00	\$3,500.00
	JES	등록비	\$7,144.39	\$16,870.44
		후원	\$9,726.05	
총수입			\$55,241.32	\$55,241.32
지출	CBAM	연례 스텝 미팅	\$3,083.61	\$24,298.61
		여름 수련회 비용	\$5,850.57	
		웹구축비 및 행정	\$470.33	
		IBA 이사회비	\$563.22	
		IBA BAM School Transfer	\$14,330.88	
	JBS	JBS 웹 운영비	\$175.86	\$443.68
		사무 및 행정	\$267.82	
	JES	강사 및 스텝 지원비	\$1,102.54	\$13,531.10
		숙박비용	\$7,635.33	
		JES 기념품	\$98.80	
		행정 및 교육비용	\$4,694.43	
	CRN	CRN Project	\$300.00	\$300.00
총지출			\$38,573.39	\$38,573.39

- Note: 저희들이 2016년 1월 1일 시작할 때의 현금 잔고는\$11,152.69였으며, 12월 31일의 잔고는 \$26,796.61입니다. 올해 재정의 증가는 CBAM의 수입은 다소 증가한 반면 CBAM과 각 프로그램에서 큰 행사나 구매에 의한 지출이 없었고 오히려 사역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7년 예산 (2017.1.1 - 2017.12.31)**

수입/지출	Team	사역항목	금액 (US \$)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9,000.00	\$29,000.00
		BAM 컨퍼런스 (100명)	\$10,000.00	
	JBS	JBS 등록비 (200명)	\$10,000.00	\$10,000.00
	JES	JES 등록비 (50명)	\$15,000.00	\$25,000.00
		JES 후원비	\$10,000.00	
	CRN	재능기부 프로젝트	\$500.00	\$4,500.00
		현지개발 프로젝트	\$4,000.00	
<b>총수입</b>			<b>\$68,500.00</b>	<b>\$68,500.00</b>
지출	CBAM	BAM 컨퍼런스	\$15,000.00	\$25,000.00
		연례 스텝 미팅	\$3,000.00	
		웹 운영 및 개발	\$3,000.00	
		BAM공동체 개발 및 지원	\$1,500.00	
		BAM컨텐츠 개발과 유통	\$1,500.00	
		행정 및 기타 경비	\$1,000.00	
	JBS	팀미팅	\$1,500.00	\$5,500.00
		JBS 교육개발 및 운영	\$3,000.00	
		JBS 아웃리치	\$1,000.00	
	JES	팀미팅	\$1,500.00	\$26,500.00
		강사 및 스텝 지원	\$2,000.00	
		호텔비용 및 행정비용	\$23,000.00	
	CRN	팀미팅	\$1,500.00	\$6,500.00
		재능기부 프로젝트	\$1,000.00	
		현지개발 프로젝트	\$4,000.00	
<b>예비비</b>			<b>\$5,000.00</b>	<b>\$5,000.00</b>
<b>총비용</b>			<b>\$62,250.00</b>	<b>\$68,500.00</b>

- Note: 전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1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증가분은 정기후원의 증가를 목표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증가분은 일단 각 팀의 인력을 보강하고 팀웍을 다지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CBAM 전체 차원에서는 올해의 핵심 사역, 즉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비비가전체 예산의 7%를 차지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ANNUAL REPORT 2016**



**CBAM**  
THE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WWW.CENTERFORBAM.COM](http://WWW.CENTERFORBAM.COM)